

새터민들의 편의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이 은 정¹⁾ · 김 은 미²⁾

신한대학교 식품조리과학부¹⁾ · 한국식품연구원²⁾

Survey of Preference and Present Use of Convenience Foods for North Korean Refugees

Eun-Jung Lee¹⁾ · Eun-Mi Kim²⁾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Culinary Art, ShinHan University¹⁾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ference and present use condition of convenience foods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211 North Korean refugees and data was analyzed with SPSS software. The preference for convenience foods of half of the questionnaires was investigated as 'moderate'. More than half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enjoy eating the convenience foods. They enjoy them as a snack. The reason to eat convenience foods is due to the convenience(n=122, 57.8%), and taste(n=42, 10.0%). North Korean refugees under the age of 29 years think the fastfood is good due to the convenience and taste. The longer the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the less they enjoy convenience foods. The reason to choose the convenience foods is 'good for health', 'convenient', 'exotic', and 'economical'.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educate people to buy reasonably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ience foods and health.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convenience food, preference, present use condition, health

I. 서 론

근래의 인구학적, 환경적 요인은 개인주의화, 소비패턴의 다양화, 편리성추구, 시간가치상승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간단하고 빠르게 식생활을 해결하고자 하는 추세가 현저해지고, 동시에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편리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리시간의 절약과 휴대와 운반이 쉽고, 저장성이 있는 가공식품인 편의식품(convenience

foods)의 이용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Lee HA 등 2005).

편의식품은 크게 냉동식품, 레토르트 파우치식품과 인스턴트식품으로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인스턴트식품, 신속제공식(quick service meal), 조리냉동·냉장음식 및 RTE(ready-to-eat food)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Cho SH 2008; Lee HA 등 2005). 특히 한 끼를 해결하는 수준의 대용식을 HMR 식품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품은 Home Meal Replacement의 약자로서, 가정식사 대용식, 대체식 또

는 편의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순 식재료를 가공 및 조리를 통해 가정에서 식사 준비 편의성을 제공하며, 바로 먹거나, 데우거나, 간단히 조리하면 표준화된 맛을 제공할 수 있는 식품을 의미한다(삼성증권 2013).

현재의 편의식품은 가공형태에 따라 냉동식품, 냉장식품, 즉석식품, 통조림, 편의점음식, 패스트푸드로 분류할 수 있으며(Lee HA 등 2005), 편의식품 섭취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로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식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주된 이유였으며, 편의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Kim HY & Jeong SJ 2002; Lee HA 등 2005; Lee KA 등 2010; Park JY 등 2012).

북한에서 제3국을 거쳐 남한에서 새로운 터전을 갖고 사는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이라고 부르는데(Jeong CH 2010), 정부에서는 공칭명칭으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매년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남한의 인구구성상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10명 이내의 적은 인원이었으나, 1994년 김일성 사망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9년 148명 입국을 시작으로 매년 수백 명씩 증가하다가 2002년 1,139명 입국 이후는 해마다 1~2천명이 입국하고 있다(Roh GN 2012). 2007년에는 북한이탈주민인구 1만 명 대가 2010년 12월에는 20,399명이 되었으며, 초기에는 남성의 입국인원이 많았으나, 2002년 기점으로 여성의 입국인원이 남성을 추월하였다. 2014년 3월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은 남자 8,016명, 여자 18,467명, 총 26,483명으로 북한인구, 24,851,627명(CIA 2014)의 0.1% 정도가 남한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일부2014).

새터민들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새터민들의 남한(한국)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남한에 정착을 잘 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oi SH 2010; Jeong CH 2010; Joo

EJ & Oh JS 2011; Roh GN 2012). 현재 새터민 식생활에 관한 연구는 이애란(2003)의 남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식생활 행동에 관한 연구, Kim MJ & Jeong HS(2011)의 북한 이탈주민의 식습관 조사, Lee EJ & Pei YQ(2012)의 연령에 따른 새터민의 식생활 만족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Lee EJ 등(2013)의 새터민들의 남한음식에 대한 수용과 선호도조사 등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새터민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에 이어, 편의식품 소비 성향이 남한과 북한이라는 서로 완전히 상반된 문화를 체험한 새터민들에게 편의식품이 그들의 식생활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고자 실시하였다. 따라서 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을 대상으로 편의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새터민들이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 및 기간

경기동부하나센터(분당소재), 경기중부하나센터(안산소재), 경기남부하나센터(평택소재), 서울시중구Y교회의 북한이탈주민들(새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사전 조사(포커스그룹조사, n=10)를 통해 일부 질문사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로 실시하였다.

한국어 설명이 필요한 남한거주1년 이하 새터민들에 대한 본 조사는 하나센터의 직원들의 한국어설명협조로 진행되었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약 2달반 동안 진행되었고, 총 260부 중 258부(회수율, 99%)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부적격한 설문지를 제거한 211부(81.8%)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 연구들(Kim HY & Jeong SJ 2002; Lee AR 2003; Lim YS 등 2005; Lee KA 등 2010; Kim MJ & Jeong HS 2011; Park JY 등 2012)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성별, 나이, 출생국, 종교, 결혼상황, 한국거주 기간, 거주하는 곳, 직업, 교육 정도, 동반가족, 월수입으로 구성하였다.

새터민들의 편의식품 선호도와 이용현황에 관해서 편의식품 선호도와 즐기는 정도,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때, 편의식품을 선택하는 이유, 편의식품의 이용빈도를 질문하였다. 편의식품은 선행연구(Lee KA 등 2010; Park JY 등 2012)를 바탕으로 냉동식품, 냉장식품, 즉석식품, 통조림, 편의점식품, 패스트푸드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냉동식품에는 냉동피자, 냉동만두, 냉동면, 냉동육가공품, 냉장식품에는 포장김치류, 햄과 소시지, 어묵류, 즉석식품에는 3분카레와 짜장, 죽류, 햇반, 봉지라면, 컵라면, 시리얼, 즉석국류, 통조림으로는 수산물통조림, 고기통조림, 편의점식품으로는 밥류, 샌드위치, 패스트푸드는 햄버거, 프라이드치킨으로 분류하였다. 편의식품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매우 동의함’ 1점, ‘동의함’ 2점, ‘보통’ 3점, ‘동의 안 함’ 4점, ‘전혀 동의 안 함’ 5점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5.0 통계패키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새터민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패스트푸드를 선택한 이유, 새터민의 연령에 따른 편의식품을 즐기는 정도의 차이, 새터민의 성별에 따른 편의식품 이용횟수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편의식품 선택이유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요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새터민의 한국 거주기간

에 따라 요인 별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비는 남자가 30.3%, 여자가 69.7%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9세 이하 36.0%, 30~39세 30.3%, 40~49세 24.2%, 50세 이상 9.5%로 50세미만이 90.5%를 차지하였다. 출생국은 북한이 98.1%, 중국이 1.4%, 일본이 0.5%였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42.6%, 가톨릭이 4.7%, 불교가 1.4%, 무교가 51.2%였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45.0%, 미혼이 40.8%, 떨어져 지남이 14.2%였다. 한국거주기간은 1년 이하가 38.4%, 1~2년이 22.7%, 2~5년이 17.1%, 5년 이상이 21.8%였다. 직업은 학생 25.8%, 비정규직회사원 20.9%,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16.1%, 주부 20.4%, 자영업 2.4%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졸 미만이 19.0%, 고졸이 53.1%, 전문대졸이 13.7%, 대졸이상이 14.2%였으며, 가족 수는 혼자 35.5%, 부부가 16.1%, 부부와 자녀가 18.0%, 자녀와 함께 있는 경우가 18.0%, 기타 12.3%였다. 수입은 월100만원 미만이 63.0%, 100~199만원이 32.7%, 200~299만원이 3.8%, 300~399만원이 0.5%로 대부분이 수입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새터민들이 수입이 낮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남한에 정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의 분포도 정착이 쉬운 경기도 79.6%로 서울 20.4%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일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까지 새터민의 평균 남녀비율이 30.8%와 69.2%인 것과 비슷하게, 조사대상도 남자 30.3%, 여자 69.7%로 여자가 훨씬 더 많았다. 주된 이유는 북한남자들은 17~18세에 군입대를 하여 10년(10년 북무연한제)의 군복무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통일연구원 2009), 이 시기 연령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

<Table 1> Demographics of respondents (n=211)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64(30.3)
	Female	147(69.7)
Age	≤29	76(36.0)
	30~39	64(30.3)
	40~49	51(24.2)
	≥50	20(9.5)
Country of origin	North Korea	207(98.1)
	Japan	1(0.5)
	China	3(1.4)
Religion	Christianity	90(42.6)
	Roman Catholicism	10(4.7)
	Buddhism	3(1.4)
	None	108(51.3)
Marriage status	Married	95(45.0)
	Not married	86(40.8)
	* Living apart	30(14.2)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0~1 yr	81(38.4)
	1~2 yrs	48(22.7)
	2~5 yrs	36(17.1)
	≥5 yrs	46(21.8)
Occupation	Student	54(25.8)
	Office worker	44(20.7)
	Part time job & Worker paid per day	34(16.1)
	Housewife	43(20.4)
	Business	5(2.4)
	Others	31(14.6)
	Education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graduate	112(53.1)
	College graduate	29(13.7)
	University graduate	30(14.2)
Living status	Alone	75(35.6)
	Husband and wife	34(16.1)
	Parents and children	38(18.0)
	With children	38(18.0)
	Others	26(12.3)
Monthly income (10,000 won)	<100	133(63.0)
	100~199	69(32.7)
	200~299	8(3.8)
	300~399	1(0.5)
Residence	Seoul	43(20.4)
	Kyeonggi-do	168(79.6)
Total		211(100.0)

* A person who remained alone, inevitably

해 이동이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새터민들의 편의식품 이용현황

1) 편의식품에 대한 선호도

새터민들의 편의식품을 좋아하는 정도는 <Table 2>와 같이 ‘매우 좋아한다(5명, 2.4%)’, ‘좋아한다(44명, 20.9%)’, ‘보통이다(108명, 51.2%)’, ‘싫어한다(37명, 17.5%)’, ‘매우 싫어한다(17명, 8.1%)’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은 편의식품 선호도에 대해 반 이상(108명, 51.2%)이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을 즐겨 먹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Table 3>과 같이 ‘매우 그렇다(8명, 3.9%)’, ‘약간 그렇다(29명, 13.7%)’, ‘보통이다(91명, 43.1%)’, ‘그렇지 않다(66명, 31.3%)’, ‘전혀 그렇지 않다(17명, 8.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새터민 211명 중 108명(51.2%)이 편의식품을 즐겨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아침(15명, 7.1%)’, ‘점심(26명, 12.3%)’, ‘저녁(29명, 13.7%)’, ‘세끼모두(9명, 4.3%)’, ‘간식(45명, 21.3%)’, ‘야식(6명, 2.8%)’, ‘특별히 없다(81명, 38.4%)’로 나타났다. ‘특별히 없다(81명, 38.4%)’를 제외하면 조사대상자의 새터민들은 편의식품을 일반식사보다는 주로 간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사한 결과로 Kim HY & Jeong SJ(2002)의 강릉지역 대학생들의 편의식품의 이용실태를 조사결과에서도 편의식품의 용도를 ‘간식으로’라고 답한 응답자가 69.6%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 대상자의 편의식품 섭취시기인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더하면 33%로, 이는 편의식품을 한 끼 식사로 이용하는 사람이 30% 이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 새터민들의 편의식품에 대한 인지도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이 맛있고 간편하여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Table 4>와 같이 ‘아니다(56명, 26.5%)’,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

〈Table 2〉 The preference of convenience foods

	Strongly favorable	Favorable	Moderate	Unfavorable	Strongly unfavorable	Total
N(%)	5(2.4)	44(20.8)	108(51.2)	37(17.5)	17(8.1)	211(100.0)

〈Table 3〉 The opinions about convenience foods

Category	N(%)	
The preferred Level of convenience foods	Strongly agree	8(3.8)
	Agree	29(13.7)
	Moderate	91(43.1)
	Disagree	66(31.3)
	Strongly disagree	17(8.1)
The mealtimes to have convenience foods	Breakfast	15(7.1)
	Lunch	26(12.3)
	Dinner	29(13.7)
	All meal	9(4.3)
	Snack	45(21.3)
	Late snack	6(2.8)
	Any time	81(38.4)
Total	211(100.0)	

각한다(101명, 47.9%)’, ‘그렇다(54명, 25.6%)’로 나타났다. 이는 편의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편의식품의 품질수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새터민들이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Table 5〉와 같이 ‘맛(42명, 19.9%)’, ‘편리성(122명, 57.8%)’, ‘영양면(19명, 9.0%)’, ‘장소의 쾌적함(14명, 6.6%)’, ‘가격의 저렴함(14명, 6.6%)’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은 영양면보다는 편리성과 맛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터민들은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가장 많았는데, 가격의 저렴함에 대해서는 14명(6.6%)만 답했다.

〈Table 4〉 Is the convenience foods quality good?

Category	No	It depends on situations	Yes	Total
N(%)	56(26.5)	101(47.9)	54(25.6)	211(100.0)

〈Table 5〉 The reason to choose the fastfood

Category	N(%)
Taste	42(19.9)
Convenience	122(57.8)
Nutrition	19(9.0)
Comfortable place	14(6.6)
Cheap price	14(6.6)
Total	211(100.0)

3. 연령, 거주기간에 따른 패스트푸드 의견

1) 새터민들의 연령에 따른 패스트푸드 의견

새터민들의 연령에 따른 패스트푸드(햄버거, 프라이드치킨)에 대한 의견은 〈Table 6〉과 같다. 29세 이하의 패스트푸드는 맛있고 간편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29명, 53.7%)이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새터민들의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패스트푸드 의견

새터민들의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패스트푸드에 대한 의견은 〈Table 7〉과 같다. 새터민들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패스트푸드의 맛, 편리성, 영양, 가격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사의 영양적인 면보다는 맛과 식사를 편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Table 6> Is the convenience foods quality good?

N(%)

Category	No	It depends on situation	Yes	Total	χ^2 -test (p)
Year	≤29	12(21.4)	35(34.7)	29(53.7)	16.208 (0.013)
	30~39	21(37.5)	33(32.7)	10(18.5)	
	40~49	15(26.8)	27(26.3)	9(16.7)	
	≥50	8(14.3)	6(5.9)	6(11.1)	
Total	56(100.0)	101(100.0)	54(100.0)	211(100.0)	

<Table 7> The reason to choose the fastfood

Category	Taste	Convenience	Nutrition	Comfortable place	Cheap price	Total	χ^2 -test (p)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0~1 yr	16(38.1)	41(33.6)	12(63.2)	5(35.7)	74(37.6)	30.352 (0.002)
	1~2 yr	6(14.3)	33(27.0)	6(31.6)	2(14.3)	1(7.1)	
	2~5 yr	14(33.3)	14(11.5)	1(5.3)	5(35.7)	2(14.3)	
	≥5 yr	6(14.3)	34(27.9)	0(0.0)	2(14.3)	4(28.6)	
Total	42(100.0)	122(100.0)	19(100.0)	14(100.0)	14(100.0)	197(100.0)	

다. 식(食)의 레저화와 편의식품의 장점인 간편화의 편의를 제공하는 면에서 Mo SM 등(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3) 새터민들의 연령, 거주기간에 따른 편의식품에 대한 의견

새터민들의 연령,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편의식품을 즐겨 먹는가에 대한 답변은 <Table 8>과

같다. 29세 이하 새터민들은 편의식품을 즐겨 먹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편의식품을 즐겨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이하 새터민들은 편의식품을 즐겨 먹지만, 남한거주기간이 길수록 편의식품을 즐겨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새터민들의 성별에 따른 편의식품 이용 횟수

<Table 8> Do you enjoy the convenience foods?

N(%)

Category	Very well	Well	To a certain extent	Heard of	Never heard of	Total	χ^2 -test (p)
Age	≤29	3(37.5)	15(51.7)	35(38.5)	20(30.3)	3(17.6)	22.010 (0.037)
	30~39	3(37.5)	5(17.2)	31(34.1)	23(34.8)	2(11.8)	
	40~49	1(12.5)	4(13.8)	20(22.0)	18(27.3)	8(47.1)	
	≥50	1(12.5)	5(17.2)	5(5.5)	5(7.6)	4(23.5)	
	Total	8(100.0)	29(100.0)	91(100.0)	66(100.0)	17(100.0)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0~1 yr	5(62.5)	11(37.9)	44(48.4)	17(25.8)	4(23.5)	23.363 (0.025)
	1~2 yr	1(12.5)	4(13.8)	18(19.8)	18(27.3)	7(41.2)	
	2~5 yr	1(12.5)	8(27.6)	16(17.6)	11(16.7)	0(0.0)	
	≥5 yr	1(12.5)	6(20.7)	13(14.3)	20(30.3)	6(35.3)	
	Total	8(100.0)	29(100.0)	91(100.0)	66(100.0)	17(100.0)	

새터민들의 성별에 따른 편의식품 20개에 대한 이용횟수는 <Table 9>와 같다. 새터민들은 냉동피자류에 대해 ‘전혀 안 먹음(98명, 46.4%)’라고 답했고, 냉동만두류, 냉동면류, 냉동고기류, 햄과 소시지, 즉석식품(3분카레, 짜장, 죽류, 햇반, 봉지라면, 컵라면, 시리얼, 즉석국류), 통조림(생선류, 고기류), 편의점음식(밥류, 샌드위치), 패스트푸드(햄버거, 닭튀김)에 대해서는 ‘필요 시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새터민들이 한 달에 1회 정도 먹는 편의식품은 냉동만두류(36명, 17.1%), 냉동고기류(36명, 17.1%), 3분카레, 짜장(33명, 15.5%), 봉지라면(36명, 17.1%), 컵라면(38명, 18.0%), 생선류통조림(39명, 18.5%), 고기류통조림(37명, 17.5%), 패스트푸드(닭튀김)(39명, 18.5%)로 나타났다.

5.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을 선택하는 이유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을 선택하는 이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직각회전방식에 의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고유치 기준을 1.0 이상인 요인들이 선정되도록 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직각회전방식에 의한 선택이 주요요인의 단일차원성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이 4개의 요인적재값이 ± 4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 또한 모두 .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 1은 ‘건강에 유익(26.15%)’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편리성(24.84%)’로, 요인 3은 ‘이국적(12.94)’로, 요인 4는 ‘경제성(9.99%)’으로 명명하였다. 설명된 총변량은 73%,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 유의확률= .000으로써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4개의 요인 모두 <Eigen value> 1.0을 충족시켰다. 베

리맥스에 의한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회전된 성분행렬은 <Table 10>과 같다.

Kim HY & Jeong SJ(2002)은 강릉지역 대학생들이 편의식품을 이용하는 이유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44.8%)’가 가장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고, 마산·창원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Lee KA 등(2010)도 편의식품 구입동기를 ‘조리간편하다(65.8%)’가 주된 이유로 조사된 바, 새터민들의 편의식품 선택하는 이유는 남한사람들에 비해 ‘편리성’ 외에 ‘건강에 유익’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6. 한국 거주 기간에 따른 집단 별 차이

편의식품을 선택한 이유 중에서 요인 1인 ‘건강에 유익’, 요인 2인 ‘편리성’ 그리고 요인 3인 ‘이국적’에서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 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 4인 ‘경제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 별 차이를 검정을 하기 위하여 사후검증을 한 결과 요인 1인 ‘건강에 유익’에서 한국에 거주한지 1년 미만 새터민은 1~2년 거주한 새터민, 2~5년 거주한 새터민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한 새터민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 거주한지 1년 이상 새터민은 1년 미만 새터민보다 편의식이 건강에 유익하다고 더 많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요인 2인 ‘편리성’에서 한국에 거주한지 1년 미만 새터민은 1~2년 거주 새터민, 2~5년 거주 새터민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 거주한 지 1년 미만 새터민은 1~5년 거주 새터민보다 편리성이 적다고 인식하고 있다. 요인 3인 ‘이국적’에서 한국에 거주 1년 미만 새터민은 1~2년 거주 새터민, 5년 이상 거주 새터민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 거주한지 1년 미만 새터민은 1~2년 거주 새터민, 5년 이상 새터민보다 편의식이 이국적인 면이 적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새터민들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집단 별 차이는 <Table 11>과 같다.

〈Table 9〉 Frequency to use the convenience foods according to gender of North Korean Refugees N(%)

			1~2 /week	3~4 /week	Once a month	If necessary	Never eat	Don't know	χ^2 -test (p)
Frozen food	Frozen pizzas	M	2(0.9)	5(2.4)	8(3.8)	22(10.4)	18(8.5)	9(4.3)	24.830*** (0.000)
		F	5(2.4)	0(0.0)	17(8.1)	24(11.4)	80(37.9)	21(10.0)	
		Total	7(3.3)	5(2.4)	25(11.8)	46(21.8)	98(46.4)	30(14.2)	
	Frozen Dim sum	M	2(0.9)	4(1.9)	13(6.2)	28(13.3)	10(4.7)	7(3.3)	4.686 (0.455)
		F	4(1.9)	5(2.4)	23(10.9)	66(31.3)	39(18.5)	10(4.7)	
		Total	6(2.8)	9(4.3)	36(17.1)	94(44.5)	49(23.2)	17(8.1)	
	Frozen noodles	M	2(0.9)	3(1.4)	16(7.6)	23(10.9)	12(5.7)	8(3.8)	10.349 (0.066)
		F	9(4.3)	6(2.8)	15(7.1)	54(25.6)	47(22.3)	16(7.6)	
		Total	11(5.2)	9(4.3)	31(14.7)	77(36.5)	59(28.0)	24(11.4)	
	Frozen meats	M	3(1.4)	8(3.8)	12(5.7)	25(11.8)	10(4.7)	6(2.8)	9.856 (0.079)
		F	6(2.8)	7(3.3)	24(11.4)	48(22.7)	50(23.7)	12(5.7)	
		Total	9(4.3)	15(7.1)	36(17.1)	73(34.6)	60(28.4)	18(8.5)	
Chilling food	Kimchi	M	6(2.8)	8(3.8)	10(4.7)	27(12.8)	8(3.8)	5(2.4)	4.619 (0.464)
		F	11(5.2)	15(7.1)	23(10.9)	53(25.1)	37(17.5)	8(3.8)	
		Total	17(8.1)	23(10.9)	33(15.6)	80(37.9)	45(21.3)	13(6.2)	
	Ham, sausage	M	4(1.9)	6(2.8)	8(3.8)	28(13.3)	10(4.7)	8(3.8)	8.540 (0.129)
		F	13(6.2)	10(4.7)	18(8.5)	55(26.1)	44(20.9)	7(3.3)	
		Total	17(8.1)	16(7.6)	26(12.3)	83(39.3)	54(25.6)	15(7.1)	
	Fish cakes	M	2(0.9)	8(3.8)	10(4.7)	24(11.4)	12(5.7)	8(3.8)	10.285 (0.068)
		F	12(5.7)	8(3.8)	17(8.1)	51(24.1)	49(23.2)	10(4.7)	
		Total	14(6.6)	16(7.6)	27(12.8)	75(35.5)	61(28.9)	18(8.5)	
	Curry, Jjajang	M	3(1.4)	4(1.9)	12(5.7)	23(10.9)	14(6.6)	8(3.8)	3.647 (0.601)
		F	6(2.8)	4(1.9)	21(10.0)	58(27.5)	44(20.9)	14(6.6)	
		Total	9(4.3)	8(3.8)	33(15.6)	81(38.4)	58(27.5)	22(10.4)	
Porridges	M	0(0.0)	2(0.9)	13(6.2)	23(10.9)	18(8.5)	8(3.8)	5.892 (0.317)	
	F	7(3.3)	5(2.4)	20(9.5)	64(30.3)	39(18.5)	12(5.7)		
	Total	7(3.3)	7(3.3)	33(15.6)	87(41.2)	57(27.0)	20(9.5)		
Cooked rice	M	3(1.4)	3(1.4)	9(4.3)	26(12.3)	15(7.1)	8(3.8)	4.319 (0.504)	
	F	6(2.8)	10(4.7)	15(7.1)	46(21.8)	53(25.1)	17(8.1)		
	Total	9(4.3)	13(6.2)	24(11.4)	72(34.1)	68(32.2)	25(11.8)		
Ready-to-eat food	Ramyeon	M	5(2.4)	16(7.6)	9(4.3)	24(11.4)	5(2.4)	5(2.4)	8.502 (0.131)
		F	21(10.0)	18(8.5)	27(12.8)	54(25.6)	20(9.5)	7(3.3)	
		Total	26(12.3)	34(16.1)	36(17.1)	78(37.0)	25(11.8)	12(5.7)	
Cup-ramyeon	M	3(1.4)	14(6.6)	15(7.1)	19(9.0)	8(3.8)	5(2.4)	12.222* (0.032)	
	F	16(7.6)	13(6.2)	23(10.9)	58(27.5)	29(13.7)	8(3.8)		
	Total	19(9.0)	27(12.8)	38(18.0)	77(36.5)	37(17.5)	13(6.2)		
Cereals	M	4(1.9)	7(3.3)	4(1.9)	22(10.4)	14(6.6)	13(6.2)	5.148 (0.398)	
	F	6(2.8)	9(4.3)	21(10.0)	43(20.4)	40(19.0)	28(13.3)		
	Total	10(4.7)	16(7.6)	25(11.8)	65(30.8)	54(25.6)	41(19.4)		
Soup	M	3(1.4)	8(3.8)	9(4.3)	22(10.4)	13(6.2)	9(4.3)	4.788 (0.442)	
	F	4(1.9)	12(5.7)	15(7.1)	50(23.7)	49(23.2)	17(8.1)		
	Total	7(3.3)	20(9.5)	24(11.4)	72(34.1)	62(29.4)	26(12.3)		
Canned food	Fishes	M	3(1.4)	4(1.9)	13(6.2)	32(15.2)	8(3.8)	4(1.9)	9.018 (0.108)
		F	18(8.5)	16(7.6)	26(12.3)	51(24.2)	31(14.7)	5(2.4)	
		Total	21(10.0)	20(9.5)	39(18.5)	83(39.3)	39(18.5)	9(4.3)	
Meats	M	4(1.9)	10(4.7)	10(4.7)	24(11.4)	10(4.7)	6(2.8)	7.229 (0.204)	
	F	14(6.6)	16(7.6)	27(12.8)	51(24.2)	35(16.6)	4(1.9)		
	Total	18(8.5)	26(12.3)	37(17.5)	75(35.5)	45(21.3)	10(4.7)		
Convenience food	Rice	M	2(0.9)	12(5.7)	11(5.2)	24(11.4)	11(5.2)	4(1.9)	7.715 (0.173)
		F	18(8.5)	17(8.1)	16(7.6)	52(24.6)	33(15.6)	11(5.2)	
		Total	20(8.5)	29(13.7)	27(12.8)	76(36.0)	44(20.9)	15(7.1)	
Sandwich	M	4(1.9)	4(1.9)	11(5.2)	27(12.8)	11(5.2)	7(3.3)	7.134 (0.211)	
	F	7(3.3)	7(3.3)	14(6.6)	53(25.1)	49(23.2)	17(8.1)		
	Total	11(5.2)	11(5.2)	25(11.8)	80(37.9)	60(28.4)	24(11.4)		
Fastfood	Hamburger	M	2(0.9)	5(2.4)	8(3.8)	29(13.7)	13(6.2)	7(3.3)	8.183 (0.146)
		F	7(3.3)	6(2.8)	13(6.2)	51(24.2)	57(27.0)	13(6.2)	
		Total	9(4.3)	11(5.2)	21(10.0)	80(37.9)	70(33.2)	20(9.5)	
Fried chicken	M	0(0.0)	8(3.8)	13(6.2)	31(14.7)	7(3.3)	5(2.4)	13.820* (0.017)	
	F	9(4.3)	7(3.3)	26(12.3)	60(28.4)	38(18.0)	7(3.3)		
	Total	9(4.3)	15(7.1)	39(18.5)	91(43.1)	45(21.3)	12(5.7)		

<Table 10> The reason to choose the convenience foods

	Reason	Factor 1	Factor 2	Factor 3	Factor 4	Cronbach's α
V52	It aids to health.	0.855				0.933
V53	It is safe.	0.854				
V41	It is sanitary.	0.776				
V36	It is nutritious.	0.723				
V42	The packing is good.	0.647				
V48	It helps the appetites.	0.631				
V43	Food waste is little.	0.620				
V37	The taste is good.	0.513				0.910
V49	It is convenient to buy.		0.859			
V44	It is convenient to use.		0.769			
V46	It has many-sided kinds.		0.757			
V51	It is simple meal.		0.754			
V50	One portion is adequate.		0.721			
V47	It causes th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0.717			
V45	It is familiar through the advertisement.		0.567			0.797
V39	It is foreign food.			0.844		
V40	It stimulates the curiosity.			0.625		
V38	It is easy to keep for a long time.			0.575		0.781
V34	It is economical.				0.792	
V35	It saves the time.				0.702	
Variance percentage(%)		26.148	24.844	12.941	9.99	
Eigenvalue		5.230	4.969	2.588	1.998	

Rotated Component Matrix(a)

KMO=.936, Bartlett's test of sphericity=3,312.524(df=190), $p=.000$

<Table 11> Factor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eriod of residence in South Korea

(Mean±SD)

Category	0~1 yr(I)	1~2yrs(II)	2~5yrs(III)	≥5yrs(IV)	Total	F-value	MRT
Factor 1 good for health	2.63±0.83	3.20±0.78	3.20±0.72	3.40±0.71	3.03±0.83	11.881***	I ~ II** I ~ III** I ~ IV***
Factor 2 convenient	2.50±0.73	2.82±0.77	2.87±0.76	2.59±0.69	2.66±0.75	3.193*	I ~ II* I ~ III*
Factor 3 exotic	2.89±0.71	3.26±0.82	3.11±0.78	3.24±0.84	3.09±0.79	3.182*	I ~ II** I ~ IV*
Factor 4 economical	2.56±0.91	2.94±0.92	2.69±0.94	2.79±0.73	2.71±0.89	0.140	n · s

* $p<0.05$, ** $p<0.01$, *** $p<0.001$

1: Agree very much, 5: Disagree very much

MRT= multiple range test

n · s: not significant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한에 거주하는 새터민들의 편의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새터민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하고, 올바른 편의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자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30.3%, 여자가 69.7%이었으며, 연령대는 66.3%가 40세 미만이고, 한국거주기간은 1년 이하가 38.4%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학생이 25.8%, 비정규직회사원 20.9%,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16.1%, 주부 20.4%, 자영업 2.4% 순이었고, 학력은 고졸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은 63.07%가 월100만원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새터민들의 편의식품을 좋아하는 정도는 ‘매우 좋아한다(5명, 2.4%)’, ‘좋아한다(44명, 20.9%)’, ‘보통이다(108명, 51.2%)’, ‘싫어한다(37명, 17.5%)’, ‘매우 싫어한다(17명, 8.1%)’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은 편의식품 선호도에 대해 반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을 즐겨 먹는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8명, 3.9%)’, ‘약간 그렇다(29명, 13.7%)’, ‘보통이다(91명, 43.1%)’, ‘그렇지 않다(66명, 31.3%)’, ‘전혀 그렇지 않다(17명, 8.1%)’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의 반 이상이 편의식품을 즐겨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이 맛있고 간편하여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56명, 26.5%)’,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101명, 47.9%)’, ‘그렇다(54명, 25.6%)’로 나타났다. 반 정도의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에 대해 경우에 따라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맛(42명, 19.9%)’, ‘편리성(122명, 57.8%)’, ‘영양면(19명, 9.0%)’, ‘장소의 쾌적함(14명, 6.6%)’, ‘가격의 저렴함(14명, 6.6%)’로 나타났다. 새터민들은 영양보다는 편리성과 맛 때문에 편의식품을 선택하고 있다.

넷째, 새터민들의 연령에 따른 패스트푸드(햄버거, 프라이드치킨 등)에 대한 의견은 29세 이하는 패스트푸드는 맛있고 간편하여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29명, 53.7%)이 가장 높았고, 나이가 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새터민들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패스트푸드의 맛, 편리성, 영양, 가격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터민들의 연령, 남한 거주기간에 따른 편의식품을 즐겨 먹는가에 대한 답변은 29세 이하 새터민들은 편의식품을 즐겨 먹는 경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편의식품을 즐겨 먹지 않았다. 1년 이하 새터민들은 편의식품을 즐겨 먹지만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편의식품을 즐겨 먹지 않았다.

다섯째, 새터민들은 냉동피자류에 대해 ‘전혀 안먹음(98명, 46.4%)’라고 답했고, 냉동만두류, 냉동면류, 냉동고기류, 햄과 소시지, 즉석식품(3분카레, 짜장, 죽류, 핫반, 봉지라면, 컵라면, 시리얼, 즉석국류), 통조림(생선류, 고기류), 편의점음식(밥류, 샌드위치), 패스트푸드(햄버거, 닭튀김)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용’한다고 답하였다. 새터민들이 한 달에 1회 정도 먹는 편의식품은 냉동만두류(36명, 17.1%), 냉동고기류(36명, 17.1%), 3분카레, 짜장(33명, 15.5%), 봉지라면(36명, 17.1%), 컵라면(38명, 18.0%), 생선류통조림(39명, 18.5%), 고기류통조림(37명, 17.5%), 패스트푸드(닭튀김)(39명, 18.5%)로 나타났다.

여섯째,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을 선택하는 이유 20개 항목에 대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4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분석 결과로서 요인 1은 ‘건강에 유익(26.148%)’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편리성(24.844%)’로, 요인 3은 ‘이국적(12.941%)’로, 요인 4는 ‘경제성(9.99%)’로 명명하였다.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요인별 차이검증을 한 결과, 요인 1은 ‘건강에 유익’은 5년 이상에서, 요인 2는 ‘편리성’은 2년~5년, 요인 3은 ‘이국적’은 1~2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요인 4는 ‘경제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일부 지역의 새터민을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상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고, 조사항목에 대해서 새터민에 대한 기존조사 결과가 부족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제한적 조건에서 새터민들의 반 이상이 편의식품을 즐겨 먹었고, 편의식품을 주로 간식으로 먹는다. 편의식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편리함과 맛으로 나타났으며,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편의식품을 즐겨 먹지 않았다. 편의식품을 선택함에 있어 영양적인 면보다는 편리함과 맛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편의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균형 있는 식사가 가능하도록 영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원에서 12주 사회적응교육을 받는 기간에 편의식품에 대해 이해시키고, 올바른 편의식품 사용방법에 대해 기초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본 조사결과가 북한의 식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생활환경이 다른 탈북주민들이 남한 식생활에 적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새터민들의 편의식품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올바른 편의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자 실시하였다. 새터민 211명에게 설문지를 조사하여 SPSS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반 이상의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을 좋아하고, 즐겨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정도의 새터민들이 편의식품에 대해 경우에 따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새터민들은 편의식품을 간식으로 즐겨 먹었다. 새터민들은 영양보다는 편리성과 맛 때문에 편의식품을 선택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패스트푸드의 맛, 편리성, 영양, 가격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새터민들에게 편의식품에 대해 이해시키고, 올바른 편의식품 사용방법에 대해 기초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참고문헌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Korea)). 식자재유통(OVERWEIGHT), 마지막 남은 개척지. 2013. 09. 30.
- 통일부. Assessed June 7. 2014.
Available from:http://www.unikorea.go.kr/index.do?menuCd=DOM_00000101007001002
-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97
- Cho SH (2008). Food Science. Kyomunsa, 342-343
- Choi SH (2010). Social integration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based on Germany's example. *J of Korean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13(1):161-190.
- CIA. Assessed June 7. 2014. Available from:<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
- Jeong CH (2010).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roles of Korean church. *Theological Forum* 60:140-143.
- Joo EJ, Oh JS (2011). A study in factors affecting social support of community members provided to North Korean settlers.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2(2):95-168.
- Kim MJ, Jeong HS (2011). Study on dietary habits of North Korean refugee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21(1):1-13.
- Kim HY (1998). Food Service Organizations. *The Hyoll*. 305-311.
- Kim HY, Jeong SJ (2002). Dietary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Kangreung area on convenience food. *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8(4):440-447.
- Lee AR (2003). A Study on the Dietary Habits of North Korean Refuge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96-100.
- Lee AR (2009). Changes of the Dietary Habits of North Koreans before and after the 1990s.

- Docto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Lee EJ, Pei YQ (2012). A study on the differences in dietary satisfaction with age in North Korean refugees. *Korean J. Food Culture* 20(6):283-291.
- Lee EJ, Pei YQ, Kim EM (2013). A survey of the adaptation and preference for South Korean food in North Korean refugees. *The Korean J of Culinary Research* 19(2):93-110.
- Lee HA, Chung LN, Yang IS (2005). Conceptualizing and prospecting for home meal replacement (HMR) in Korea by delphi technique. *Korean J Nutr* 38(3):251-258.
- Lee KA, Cho EJ, Yoon HS (2010). A study on consumption of convenience foods of university by residing types in Chanwon and Masan area. *J Korean Diet Assoc* 16(3):279-290.
- Lim YS, Park HR, Han GJ (2005). Comparison of preference for convenience and dietary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by sex in Seoul and Kyunggi-do area. *J Korean Diet Assoc* 11(1): 11-20.
- Mo SM, Jeon MJ, Baek SK, Lee SK (1989). A secondary survey of fast food dining out behaviors-focused on Youido apartment compound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4(1): 83-84.
- Park JY, Kim JN, Hong WS, Shin WS (2012). Survey on present use and future demand for the convenience food in the elderly group. *Korean J Community Nutr* 17(1):81-90.
- Roh GN (2012). Understanding anisotropy of 'Saetemin': Cultural discourse for communication. *J of Korean Feminist Philosophers* 17:64-65.
-
- 2014년 06월 10일 접수
 2014년 08월 25일 1차 논문수정
 2014년 10월 25일 2차 논문수정
 2014년 11월 30일 3차 논문수정
 2014년 12월 05일 논문게재확정